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
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서정의*.신현열**.김보성***.강정미***

조사국 금융산업팀

-
- * 금융산업팀 차장(Tel : 02-759-4182, e-mail : sjc1205@bok.or.kr)
 - ** 금융산업팀 과장(Tel : 02-759-4435, e-mail : hyshin68@bok.or.kr)
 - *** 금융산업팀 조사역(Tel : 02-759-4207, 4543, e-mail : bankfis@bok.or.kr)

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임호열 금융산업팀장님, 박정룡 부국장님(1급)께 감사드립니다.

차 례

< 요 약 >

I . 세계 금융산업의 최근 조류	1
II .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5
1.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3. 보험사	
4. 종합 판단	
III . 경쟁력 강화 방안	30
1. 우리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2. 금융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	
3. 금융하부구조의 개선	

< 요 약 >

I. 세계 금융산업의 최근 조류

-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거래비용 감소 및 해외금융상품의 수요 증대, 다국적 금융기관 증가 등으로 **금융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
 - 국경간거래 확대로 국제자본 흐름의 영향이 각국 금융시장에 실 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각국 주가.금리 등의 동조화 현상 심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금융기관 간 M&A 확대, 타 금융업종의 부분적인 겸영 허용 등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겸업화**를 적극 추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의 증권화, 파생상품거래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는 등 **금융혁신 확산**
 - 또한 IT기술의 발달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간 연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
- 인구 고령화로 장기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금융 및 실물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등 one-stop service에 대한 욕구 증대
 - 이에 부응하여 은행권의 프라이빗 뱅킹,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보험사의 재무설계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II.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1.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 힘입어 총자산 등 양적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규모가 작은 수준(4대 은행 총자산, 미국의 13.4%)
 - 수익성은 그 동안의 인력 감축, 업무효율 향상 등에 힘입어 ROA(2006년 1.11%)가 미국(2005년 1.31%) 수준에 접근하는 등 질적으로 크게 개선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99년 11.8% → 2006년 12.8%로 상승하고, 부실여신비율은 12.9% → 0.8%로 크게 낮아지는 등 건전성도 향상

총자산규모 및 ROA 비교

(억달러, %)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총자산	1,497 (13.4)	10,384	6,794	11,166	14,770
ROA	1.11	0.56	0.71	1.31	-0.10

주 : 자산규모는 2005년말 4대 은행 평균, ()내는 미국 대비, ROA는 2006년

- 다만 본질적인 수익창출능력은 하락 추세
 -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이 축소되고 특별이익(LG카드주식 매각이익 등)을 제외한 구조적이익률도 저하되는 모습
-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 ROA는 은행권의 절반 수준인 0.5%(2006년말) 내외에서 정체되고 부실여신비율도 대출고객의 낮은 신용도, 대출심사기능 취약 등으로 인해 은행보다 훨씬 높은 2~10% 수준
- **핵심기능 수행정도**를 보면 은행은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보이나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대출**(2000년말 총대출의 58% → 2006년말 46%)이 부진하여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는 경향
 - 다만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새로운 자금운용처 발굴 등으로 2000년말 기업대출의 77% → 2006년말 91%로 증가하여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강화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수신규모는 예금은행의 51%(2006년말)에 이르고 있으나 여신규모는 예금은행의 27% 수준에 불과하여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이 위축
- **자생능력** 면에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수수료.투자은행 수익 등 비이자수익의 비중(2006년 13%)이 미국(43%), 영국(47%)보다 현저히 낮아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이 불안정해질 가능성
 - **리스크관리능력**은 외환위기 이후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동태적 리스크관리능력이 축적된 선진은행에 비해서는 취약
 - **영업망 구축**에 있어 국내은행은 해외자산 비중이 2.5%(2006년말)에 불과하고 수익의 97%를 국내에서 창출하고 있어 광범위한 해외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선도은행들에 비해 크게 낙후
 - 또한 상품개발, 파생상품거래 전문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반업무(전체의 92%) 위주의 채용, 무차별적인 평가.보상 등으로 **핵심인력 육성체계도 미흡**

2.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 2006년말 현재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 및 6.7%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영세

미국과 한국의 5대 증권사 규모 비교

(십억달러, %)

	총자산		자기자본	
	2005	2006	2005	2006
미국 (A)	596.7	730.8	24.1	28.3
한국 (B)	7.1	9.6	1.6	1.9
B/A	1.2	1.3	6.6	6.7

-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내 외국계의 절반 수준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추이

(%)

	수익성		건전성	
	ROA	ROE	영업용순자본비율	순유동자산비율
국내사	2001	-2.02	-	132.4
	2006	3.35	14.28	537.8
외국계	2006	7.37	28.83	686.5
				27.05

-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영업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6년중 ROA가 17.8%를 기록하여 국내 외국계 (15.2%) 보다 수익성이 다소 양호
- 핵심기능 수행정도를 보면 증권사는 유가증권 인수·매출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공급이라는 직접금융 본연의 기능이 미흡
- 국내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국내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2002년 이후 계속 감소

- 자생능력 면에서 영업범위를 보면 국내 증권사는 리스크 인수 능력 취약으로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한 수익의존도가 매우 높아 자기매매와 투자은행분야 등 수익원이 다변화된 주요국 투자은행들과 크게 대비
 - 전문인력 측면에서 선진국 투자은행들은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투자은행업무 등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
 - 자산운용사의 경우 상품개발능력 미비에 따른 상품모방 등으로 펀드규모가 작아 장기안정적 운용 곤란
 - 펀드별 평균 수탁금액은 2007.1월말 현재 295억원(8,239개)으로 미국의 2.5% 수준

3. 보험사

- 상위 3개 생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미국과 일본 상위 3사의 10~20% 수준

주요국 생보사 자산규모 비교

(2005회계연도말 기준)

(십억달러)

	한국		미국		일본	
	전체	상위 3사	상위 10사	상위 3사	전체	상위 3사
총 자 산	11.2	61.3	228.2	359.6	47.0	298.9
자기자본	0.8	4.4	-	41.3	3.8	25.3

- 수입보험료 규모는 세계 7위로 경제규모 순위를 능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명목GDP 대비 비중도 10.5%로서 보험시장 규모가 미국(9.2%), 일본(10.5%) 등에 비해 작지는 않은 상태

- 그러나 가계의 생명보험 계약 자산의 명목GDP 대비 비율(한국 28%, 미국 96%)로 보면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아직도 **발달 미흡**
- 국내 보험사의 수익성은 투자수익률이 낮은 채권보유 과다로 다소 미흡하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
- 생보사의 총자산이익률(2006년중 5.49%)이 하락하고 200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운용자산수익률(5.75%)도 최근 들어 저조 손보사는 경과손해율(2006년 79%)이 교통사고 과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 증가 등으로 외국계(39%)보다 2배 이상 높아 수지부담요인으로 작용
- 다만 건전성은 생보사(2006년말, 지급여력비율 237%, 유동성비율 197%), 손보사(지급여력비율 300%, 유동성비율 181%) 모두 양호

생보사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

		국내사			외국계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수익성	ROA	4.03	6.21	5.49	4.74	4.79	4.64
	운용자산수익률	4.21	6.44	5.75	5.05	5.09	4.88
경영효율성	보험금지급률	82.73	66.44	62.14	72.67	41.14	33.25
	신계약률	38.27	16.76	16.84	42.1	28.03	21.64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67.7	228.1	237.4	72.4	190.5	193.6
	유동성비율	-	140.64	196.60	-	112.56	173.72

- 핵심기능 수행정도를 보면 수입보험료 증가추세가 완만한 데다 운용자산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생보사의 경우 외국계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수입보험료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2002.3월말 7% → 2006.3월말 21%)

- 국내 생보사 유가증권 중 주식 비중은 2005년중 6% 수준으로 주요국 생보사에 비해 자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

주요국 생보사의 자산구성

(%)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		예금·대출		기타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한국	14	47	14	6	3	6	61	24	9	18
미국	62	56	16	24	1	2	14	12	7	6
영국	30	41	53	33	8	10	8	11	2	6
일본	32	52	21	24	1	2	40	20	7	3

- 자생능력 면에서는 리스크관리에 있어 선진국 보험사의 경우 80% 이상이 정교한 ALM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도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이 낙후
- 해외네트워크도 2006.9월말 현재 국내 보험사는 55개(현지법인 15개, 지점 7개, 사무소 33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
- 보험사의 핵심인력으로 간주되는 보험계리사의 수가 340여명 (2006.9월말, 전체의 0.5%)에 불과하여 미국의 2.2만명(2005.10월말, 전체의 3.5%)에 비해 크게 부족

4. 종합 판단

- 국내은행은 대형화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수익성과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나 과점체제에 의한 시장점유율 경쟁 등으로 향후의 성장 전망은 불투명
- 이자수익 의존, 국내시장에 집중된 영업망, 리스크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주요 선진은행에 비해 자생력도 취약

→ 최근의 수익성 정체 기미, 경쟁격화에 따른 대형은행의 薄利多賣 추구 및 쏠림현상(herd behaviour)*의 반복·일반화 등에 비추어 은행권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

* 외환위기시 대출기피,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확대경쟁 등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은행과의 경쟁력 격차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면서 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위축
- **증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과 건전성도 낮은 데다 유가 증권 인수·매출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공급이라는 고유기능 수행도 미흡**
 -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구조, 상품개발 및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해외 영업망 미비 등으로 주요국 투자은행에 비해 자생능력도 크게 취약
-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자의 수익극대화를 지원하는 핵심기능을 단기간에 구축해 가고 있으나 펀드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시장상황에 따라 환매도 잦아 장기 안정적 펀드운용 곤란
- **보험사는 보험시장의 성장정체에 따른 경쟁격화와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금리가 예정이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전망이 부정적**
 - 리스크관리시스템, 해외네트워크, 전문인력 미흡 등으로 선진국 보험사에 비해 자생능력도 부족

III. 경쟁력 강화 방안

1. 우리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진출 확대, 대형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을 배가
- 금융기관 진입과 퇴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은행과 직접금융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경업화에 의한 시너지효과 발현, one-stop service 확대 등으로 각 경제주체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생보사.연금을 중심으로 주식.채권 등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이들 기관의 자산운용기능 충실화로 노인.은퇴계층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제 정착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감독과 규제의 효율화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

⇒ 이런 미래상을 갖추기 위해 각 금융권이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금융산업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에 더하여 금융산업의 틀 개선과 관련하여 추가로 법제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 아울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하부구조 개선방안을 제시

2. 금융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가.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① 은행권의 경쟁촉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발맞추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금융자본의 은행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과점체제인 은행권의 역동성을 회복
- ① 예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단일법으로 규율하되 은행·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업종별 금지업무를 규정
- ②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과 연계하여 소유·지배구조,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③ 현행 은행 설립자본금(市銀 1,000억원, 地銀 250억원)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제거
- ④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과 유사한 주택금융전문기관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 ⑤ 서민금융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소액신용대출 등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무 취급 요구를 수용
- 이러한 제도개편이 추진되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취급이 허용되면서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쟁력 유지 가능

- 또한 소형은행이 저위험·저수익 업무를 강화할 경우 대형은행들은 수익 다각화 및 자발적인 해외진출 확대 추구 불가피
- 소형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민밀착형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서민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기대

②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정부방침*을 참고하되 우리 금융기관의 기초 경쟁력을 반영하여 은행·증권·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전방위로 추진하기보다는 은행의 우선적인 진출을 유도하는 전략이 유리

* 정부는 2007.4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수익성,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판단하되 정부는 규제개혁과 리스크관리 강화, 해외진출 지원·협력체제 구축 및 금융외교 확대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할 방침

- 진출지역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금융수요가 큰 아시아 신흥 시장을 최우선시
- 주력업무는 모기지론, 모바일뱅킹 등 소매금융을 우선으로 하되 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글로벌 사모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포함
- 시장침투 전략으로는 소액무담보금융(micro credit) 등을 통해 평판효과를 높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

③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관련정책을 추진
 - ① 채권자권리 보호, 계약이행, 회계·공시제도, 채권추심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미비점의 점검과 개선
 - ② 부실기관의 신속한 퇴출, 모니터링 강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정책 운용
 - ③ 우체국 예금·보험 등에 대해서는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증권사

① 증권업의 구조재편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더하여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함으로써 시장조성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투자 은행 출현을 유도
 -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대형 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시장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리스크가 큰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하는 데는 한계
 - 주식 위탁매매 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의 broker들이 출현하도록 유도

- 대형 투자은행과 다수의 broker가 병존하는 형태로 시장구조가 재편될 경우 대형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M&A, 모험자본 투자 등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할 유인이 발생하고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로 주가·금리 등 가격변수가 합리적으로 형성
- 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고객 채권거래 유인도 발생하는 만큼 개인의 채권투자 촉진으로 국채·회사채 등 장기채 유통시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② 채권 지급보증제도 보완

- 채권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재편된 이후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해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보강 방안을 검토
-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취급을 재개할 경우 지급보증 실적을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연계하는 등 지급보증 관련 리스크가 증권사의 건전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덕해이를 방지
- 채권보증전문기관 설립시 기존 보증보험사의 기능 강화, 증권사·은행 등의 출자에 의한 민간 보증기구 설립 등의 타당성을 검토

③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완화

- 자금조달·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
- ①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전용 자산운용사 등의 설립을 허용

- ②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 공공금융기관의 PEF 출자제한 완화, 연기금 등에 대한 재간접투자 허용 등으로 기관투자가의 PEF 투자를 활성화
- ③ 헤지펀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건전한 투자자금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의 규제수준을 상시 점검하여 헤지펀드의 생태여건을 개선

다. 보험사

① 보험사의 자산운용기능 확충

-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채권과 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바, 주식운용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①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로 개편하여 자산운용 범위를 주식 등으로 다변화
- ② 최근 그 방향이 확정된 생보사 상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자본 충실화를 도모함으로써 RBC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

②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수요기반 확충

- 연금시장은 노인·은퇴계층에 대해 소득확보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보험사의 주식 운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

- 따라서 채권위주(자산의 87%)인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구조 개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연금의 주식운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 ①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운용
 - ② 퇴직연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사내 퇴직적립금의 손비인정 폐지, 퇴직적립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의무화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모색
 - 아울러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

3. 금융하부구조의 개선

- 금융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하부구조를 정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 추진될 필요
- 가. 신용평가제도 개선
-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의 외형성장(매출액 1997년 100억원 → 2006년 575억원)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채권시장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 따라서 직접금융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평가제도의 신뢰구축 방안을 강구

- ① 신용평가사의 업무성과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피평가기업과의 유착에 의한 신용등급 왜곡 등에 대한 처벌장치 강화
- ②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복수평가제도가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로 인해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 효용성을 재검토

나. MBS 관련 제도 개선

- 주택대출채권담보부증권(MBS) 등 유동화증권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확보수단이 되는 동시에 보험사, 연금 등의 자산운용 대상으로서 채권시장의 深度를 제고
 - 그러나 부실자산 처리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ABS 시장이 2000년 이후 크게 위축(2003년 40조원 → 2006년 23조원)되고 MBS 발행잔액은 8.9조원에 불과(2006년말 채권잔액 146조원의 6%, 미국은 23%)
- 유동화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ABS보다 가계의 주택구입 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효과를 수반하는 MBS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 벤처캐피털시장 활성화

- 벤처캐피털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신생기업의 출현·성장을 유도

- 벤처캐피털시장은 명목GDP 대비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정부출자 비중 1997년 5.7% → 2003~06년 30%) 확대에 주로 기인
- 따라서 벤처캐피털에 대한 정부역할 축소, 벤처캐피털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방식 재조정, 창업투자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검토
 - ①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출자를 점차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대신 창업투자사가 공모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 검토
 -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모험자본 투자대상기업 선별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법정 존속 시한인 2007년말 이후 즉시 폐기

라.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만큼 **개별 금융 회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 정부는 최근 발족한 金融專門大學院 및 金融人力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금융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수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확충하는 데 주력
- 개별 금융기관 스스로도 비용 통제로 순이익을 늘리는 성장구조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인력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 은행의 경우 1인당 자산이나 수익규모로 볼 때 고급인력 확보 여력이 충분하므로 취약부문의 전문인력 확대에 주력

I. 세계 금융산업의 최근 조류

(금융의 세계화)

-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거래비용 감소 및 해외금융상품의 수요 증대, 다국적 금융기관 증가 등으로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크게 진전

주요국 대외자산·부채¹⁾ 추이

(십억달러, %)

		1995	1999	2001	2003	2004	2006 ²⁾
미 국	대외자산	3,965(53.6)	7,400	6,931	8,318	10,075	11,079(88.9)
	대외부채	4,270(57.7)	8,437	9,270	10,658	12,525	13,625(109.4)
영 국	대외자산	2,391(210.5)	3,909	4,554	6,281	7,596	8,282(371.7)
	대외부채	2,427(213.6)	4,013	4,658	6,398	7,879	8,653(388.4)
일 본	대외자산	2,633(50.2)	3,014	2,882	3,600	4,167	4,291(94.3)
	대외부채	1,815(34.6)	2,185	1,521	1,986	2,383	2,759(60.7)
프랑스	대외자산	1,383(88.1)	2,213	2,443	3,681	4,473	4,886(229.8)
	대외부채	1,418(90.3)	2,203	2,245	3,526	4,312	4,693(220.7)
한 국	대외자산	185(38.4)	256	325	442(49.8)
	대외부채	249(51.6)	338	414	654(73.7)

주 : 1)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파생상품투자 등

2) 한국 이외는 2005년말 기준, () 내는 명목GDP 대비 비중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IIP)

- 국경간 거래 확대로 국제자본 흐름의 영향이 각국 금융시장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각국 주가·금리 등의 동조화 현상 심화
 - 또한 외부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 증대
-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대외경쟁에 직면함으로써 경영체질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의 압력으로 작용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 각국 금융기관들은 금융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등으로 대형화.겸업화를 적극 추진
- 미국은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타업종 겸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간 M&A(mega merger)가 활성화

주요 대형 금융기관의 합병 사례

	합병 당사자	비 고
1997. 12	UBS(스) + SBC(스)	당시 자산규모 세계 2위
1998	Citicorp(미) + Travelers Group(미)	당시 자산규모 미국 1위
1998	NationsBank Corp(미) + BankAmerica(미)	당시 자산규모 미국 2위
1998. 11	Deutsche Bank(독) + Bankers Trust(미)	당시 자산규모 세계 1위
1999. 8	다이아이치간교은행(일) + 니혼고교은행(일) + 후지은행(일) → 미즈호그룹	당시 자산규모 세계 1위
1999. 10	스미토모은행(일) + 사쿠라은행(일) → 미쓰이스미토모그룹	당시 자산규모 세계 3위
2000. 2	Royal Bank of Scotland(영) + NatWest(영)	당시 자산규모 영국 2위
2000. 3	도카이은행(일) + 아사히은행(일) + 산와은행(일)	당시 자산규모 세계 2위
2000. 4	도쿄미쓰비시(일) + 미쓰비시신탁(일) → 미쓰비시그룹	당시 자산규모 세계 5위
2000. 4	HSBC(영) + CCF(프)	당시 자산규모 유럽 1위
2007. 5	Unicredit(이) + Capitalia(이)	자산규모 유럽 2위
2007. 6	Barclays Bank(영) + ABN AMRO(네)	진행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Bloomberg 등

- 유럽에서는 EU통합에 따른 역내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형화가 촉발.확산
- 일본은 전후 지주회사를 금지해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대규모 금융그룹이 잇따라 출현

(금융혁신 확산)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의 증권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는 등 금융혁신이 확산
 - 금리.주가.환율 등과 연계된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및 신종 금융기법이 대거 개발

세계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잔액 추이

(십억달러)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1~9
합 계	9,282	14,264	23,856	46,592	57,816	75,578
				(257,894)	(297,670)	(369,906)
종류별	금리선물·옵션	8,618	12,642	21,715	42,769	52,297
	통화선물·옵션	154	96	74	164	174
	주가지수선물·옵션	510	1,526	2,066	3,659	5,345
지역별	북 미	4,852	8,168	13,720	27,608	36,394
	유 럽	2,241	4,198	8,801	16,308	17,982
	아시아·태평양	1,990	1,612	1,206	2,427	3,014
	기 타	198	286	129	249	426
						514

주 : () 내는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07.4)

- 한편 IT기술의 발달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간 실시간 연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
 - 차세대 전자지급수단,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유비쿼터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경쟁.제휴 등도 활발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력, 동북아의 중심 위치 등 금융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글로벌경쟁 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

(고령화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

- 인구 고령화로 장기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금융 및 실물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등 일괄서비스(one stop service)에 대한 욕구 증대
 - 이에 부응하여 은행권의 프라이빗 뱅킹,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보험회사의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주요국별 고령화 추이 예상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통계청

- 한편 선진국의 경우 가계부문은 거래 및 보유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보유를 늘려나가는 추세
 - 또한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은행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드는 대신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형·혼합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

* 적립식 펀드, 주가 또는 환율연동예금,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리츠, 변액보험 등

II.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 금융권별 경쟁력을 경영성과, 핵심기능 수행정도, 자생능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
 - 경영성과는 금융기관 규모, 수익성, 건전성 등을 분석
 - 핵심기능 수행정도는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관련한 시장 상황, 자금조달·운용 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
 - * 은행 예대업무, 증권은 주식·채권 공급, 보험서비스 제공 등
 - 자생능력은 수익구조, 리스크관리능력, 국내외 점포망, 전문인력 보유정도 등으로 평가

1.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경영성과)

-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 힘입어 총자산·자기 자본 등 양적규모가 대폭 확대된 동시에 수익성·건전성 등 질적으로도 개선
 - 국내 4대 은행의 총자산규모는 1998년 188조원 → 2006년 650조원으로 3.5배로 신장
 - 그러나 국내 4대 은행의 총자산과 기본자본 규모는 미국 4대 은행의 13.4%, 12.7% 정도로 아직은 작은 수준

주요국 4대 은행 자산규모¹⁾ 비교

(억달러, %)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총 자 산	1,497 (13.4)	10,384	6,794	11,166	14,770
기본자본	81 (12.7)	403	164	639	518

주 : 1) 2005년말 기본자본 기준 상위 4대 은행 평균, () 내는 미국 대비
자료 : The Banker(2006.7)

-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후의 인력 감축, 업무효율 향상 등에 힘입어 크게 향상
 - * 2006년중 국내은행 순이익규모는 13.6조원으로 전체 상장 제조업 순이익 25.9조원의 52%에 해당
 - 국내은행의 ROA(2006년 1.11%)는 일본, 독일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2005년 1.31%) 수준에 접근

주요국의 은행 수익성 비교

(%)

	한국 (2005)	일본 (2005)	독일 (2003)	미국 (2005)	영국 (2003)
ROA	1.27	1.11	0.56	0.71	1.31
ROE	18.42	14.64	13.37	-	13.0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OECD Bank Profitability Statistics 등

- 한편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999년 11.8% → 2006년 12.8%로 상승하고, 부실여신비율이 12.9% → 0.8%로 대폭 낮아지는 등 건전성도 향상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 추이

(%)

	1999	2000	2002	2004	2006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1.75	10.58	11.33	12.06	12.75
부실여신비율 ¹⁾	12.86	8.00	2.33	1.90	0.84
연체율 ²⁾	-	-	1.8(1.5)	1.8(1.7)	1.0(0.7)

주 : 1) 고정이하여신/총여신 2) 기업대출 기준, () 내는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보면 저원가성예금의 비중 저하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수익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 전체 자금조달 대비 저원가성예금 비중이 2005년말 14.3% → 2007.3월말 12.9%로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도 2.80% → 2.65% → 2007. 1/4분기중 2.46%로 계속 축소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2005	2006					2007 1/4	미국 ¹⁾ (2006)
		1/4	2/4	3/4	4/4	연간		
순이자마진(NIM)	2.80	2.80	2.67	2.57	2.57	2.65	2.46	3.18

주 : 1)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 상업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또한 ROA도 특별이익(LG카드주식 매각이익 등)을 제외할 경우 2005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어 본질적인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이익률*도 저하되는 추세

* 구조적이익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상이익을 의미

국내은행의 구조적이익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1/4	미국(2006) ¹⁾
구조적 이익률	1.79	1.63	1.51	1.39	1.70

주 : 1)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 상업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 및 운용여건이 은행에 비해 크게 불리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진
 - 2006년말 현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ROA는 은행권(1.11%)의 절반 수준인 0.5% 내외에서 정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ROA) 추이¹⁾

(기말기준)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호저축은행	-	-	1.60	0.84	0.46	-0.47	0.90	0.64
신용협동조합	-0.17	-0.54	-0.64	0.49	0.51	0.59	0.64	0.46
상호금융 ¹⁾	-	-	-	0.30	0.49	0.50	0.58	-

주 : 1) 농·수협 단위조합 및 산림조합의 총자산 금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비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은 점차 하락하고는 있으나 대출고객의 낮은 신용도, 대출심사기능 취약 등으로 인해 부실여신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은행보다 훨씬 높은 2~10% 수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실여신비율¹⁾ 추이

(기말기준)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호저축은행	26.2	26.9	15.7	11.3	11.8	13.0	13.8	10.5
신용협동조합	15.9	12.1	9.9	6.1	6.3	6.0	5.4	4.5
새마을금고	14.1	9.8	7.9	6.7	5.5	-	-	-
상호금융 ²⁾	-	7.0	4.9	2.6	2.4	2.5	2.4	2.0

주 : 1) 고정이하여신/총여신

2) 농·수협 단위조합 및 산림조합의 총자산 금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핵심기능 수행정도)

- 예대규모 추이를 보면 국내은행의 핵심기능 수행정도는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

- 국내은행의 예수금 규모는 2000년말 439조원 → 2006년말 707조원으로 1.6배, 총대출은 2000년말 326조원 → 2006년말 685조원으로 2.1배 각각 증가

예금은행¹⁾ 자금조달구조 추이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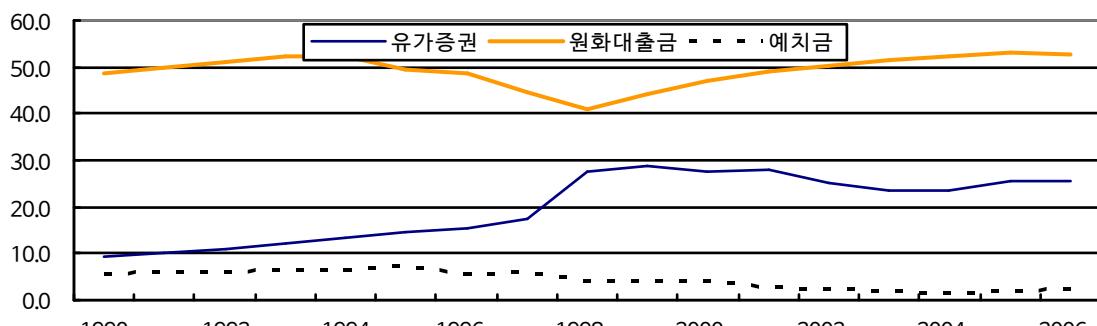
	2000	2002	2004	2006
예수금	438.5 (61.0)	554.9 (64.0)	611.0 (62.9)	706.7 (60.2)
원화예금	407.0 (56.7)	511.0 (58.9)	545.9 (56.1)	604.0 (51.5)
은행채	75.5 (10.4)	99.8 (11.4)	145.5 (14.9)	206.7 (17.5)
차입금	144.8 (20.2)	146.8 (16.9)	127.6 (13.1)	164.3 (14.0)
합계	719.5 (100.0)	868.3 (100.0)	973.2 (100.0)	1,175.2 (100.0)

주 : 1) 외은지점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2002년 이후 예수금과 차입금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계속 확대
 - 비은행권과의 수신경쟁으로 수신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은행간 대출확대 경쟁으로 은행채가 유효한 대체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
-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대출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대출은 부진하여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는 경향
 - *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성(2006년 대출금 53%, 유가증권 25%)은 미국(2004년 대출금 57%, 유가증권 23%) 및 일본(2006년 대출금 56%, 유가증권 25%)과 대체로 유사

예금은행의 자산구조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기업대출 비중은 2000년말 58% → 2006년말 46%로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중 36% → 51%로 대폭 확대
- 다만 중소기업대출은 정부의 정책 의지, 은행의 새로운 자금 운용처 발굴 등으로 2000년말 기업대출의 77% → 2006년말 91%로 증가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강화

예금은행의 부문별 대출잔액¹⁾ 추이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대 출	325.5	363.2	461.8	524.0	551.5	599.3	684.9
기 업 대 출	189.5 (58.2)	188.9 (52.0)	226.0 (48.9)	256.6 (49.0)	260.4 (47.2)	275.3 (45.9)	317.6 (46.4)
(중소기업)	145.6 <76.8>	157.0 <83.1>	193.9 <85.8>	228.7 <89.1>	235.6 <90.5>	246.7 <89.6>	290.2 <91.4>
가 계 대 출	115.6 (35.5)	160.7 (44.2)	222.2 (48.1)	252.8 (48.3)	275.4 (49.9)	304.7 (50.9)	345.6 (50.5)
(주택담보)	54.2 <46.9>	86.5 <53.8>	132.0 <59.4>	153.3 <60.6>	169.7 <61.6>	190.3 <62.4>	217.0 <62.8>
공 공 . 기 타	20.3	13.7	13.5	14.6	15.8	19.2	21.7

주 : 1) 예금은행(産銀 제외) 원화대출금 기준

2) () 내는 총대출 대비 비중, < > 내는 기업 및 가계대출 대비 비중

자료 : 금융시장국

-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수신규모는 2006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51%에 이르고 있으나 여신규모는 예금은행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이 위축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신비중이 여신비중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은 예금은행에 비해 여수신금리가 높은 데 주로 기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여수신¹⁾ 비중 추이

(조원,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 축은행	신협	상호 금융	우체국	새마을 금고	예금은행
수신	2000	172.0 (42.3)	10.9	9.9	48.9	12.5	17.8	407.0
	2004	247.9 (45.4)	13.2	7.6	49.4	12.9	16.9	545.9
	2006	310.3 (51.4)	14.3	7.3	49.7	12.2	16.5	604.0
여신	2000	95.4 (28.6)	16.5	12.3	55.4	0.2	15.5	333.8
	2004	153.1 (27.0)	19.8	8.0	55.9	0.1	16.2	566.4
	2006	187.6 (26.8)	22.8	8.1	55.0	0.2	13.9	699.7

주 : 1)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기준, () 내는 예금은행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자생능력)

- 수익구조, 리스크관리능력, 해외네트워크, 전문인력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 국내은행의 자생능력을 보면 주요국 은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익구조면에서 국내은행은 수수료·투자은행 관련수익 등 비자수익의 비중(2006년 12.8%)이 미국(43.0%), 영국(46.5%) 등보다 현저히 낮아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규모가 불안정해질 가능성

주요국의 비이자수익 비중 비교

(%)

	한국 (2005)	일본 (2005)	독일 (2003)	미국 (2005)	영국 (2003)
비이자수익/총수익	11.5	12.8	20.4	53.5	43.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OECD Bank Profitability Statistics, FRB Profits and Balance Sheet Developments at U.S. Commercial Banks in 2005, 日本全國銀行協會

- 리스크관리능력은 외환위기 이후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광범위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동태적 리스크관리능력이 축적된 선진국 은행에 비해서는 여전히 취약

- 국내은행 해외점포망은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1997년 257개→2006년 113개)에 머물러 해외자산 비중이 2006년말 현재 2.5%에 불과하고 수익의 97%를 국내에서 창출
 - 반면 주요국의 선도은행들은 오랜 해외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정보, 전문인력 등 해외영업 인프라를 이미 구축함으로써 해외자산비중이 30~90%에 이른

주요국 선도은행의 해외자산 비중¹⁾

국 가	최대 은행그룹	해외자산 비중
스위스	UBS	90.1%
독일	Deutsche Bank	79.0%
영국	HSBC	57.3%
미국	Citi	42.8%
프랑스	Credit Agricole Groupe	32.3%

주 : 1) 2005년 기준(다만 자료입수 불가시 2004년말 자료 이용, 총자산의 국내외 구분이 불가능 경우 순익·대출자산·직원 수 등으로 추정
 자료 : The Banker(2006.7), 개별 은행금융그룹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분석국

- 전문인력 측면에서 보면 상품개발, 자산 및 리스크관리, 파생상품거래 능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채용, 평가·보상 등에 있어 핵심인력 육성체계 미흡
 - 국내은행의 경우 대다수 직원을 일반업무(92.1%) 위주로 채용하고 있으며, 여신심사(1.1%), 투자은행(0.7%) 등 전문직원 채용은 여전히 극소수

국내은행 직무별 채용현황

(명, %)

정보기술	재무관리	여신심사	투자은행	국제시장	금융시장	일반업무	합계
218 (2.4)	178 (2.0)	98 (1.1)	65 (0.7)	77 (0.8)	81 (0.9)	8,354 (92.1)	9,071 (100.0)

주 : 2006년 기준

자료 :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참고 1>

은행업의 시장집중도

- 국내은행 수는 합병, 퇴출 등으로 1995년 33개 → 2006년 18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도 크게 감소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¹⁾ 추이

(개)

	1995	2000	2003	2006	1998~2005		
					퇴출	합병	신설
은행	33	22	19	18	5	9	-
상호저축은행	236	146	144	110	106	29	15
신용협동조합	1,665	1,317	1,086	1,025	514	110	9
새마을금고	2,969	1,827	1,671	1,591	-	-	-
상호금융	1,730	1,600	1,577	1,441	-	-	-

주 : 1)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시장집중도는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CR_3) 기준 1995년말 28.0 → 2006년말 44.5,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 615.6 → 1,105.9로 대폭 상승

국내은행의 집중도 변화

	1995	2000	2001	2003	2005	2006
CR_3	28.0	35.7	46.8	45.4	43.6	44.5
HHI	615.6	815.8	1,115.3	1,075.5	1,008.0	1,105.9

주 : 일반은행, 농·수협 및 중소기업은행 총자산 기준

- 은행업의 시장집중도는 다소 집중된 상태*로서 이는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보다는 높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HHI가 1,800 이상이면 집중, 1,000 ~ 1,800은 다소 집중, 1,000 미만은 경쟁적인 것으로 분류

주요국 은행업의 시장집중도¹⁾(CR_3) 비교

(%)

싱가포르	홍콩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미국	일본
98.7	67.8	67.0	59.2	49.6	44.5	37.4	32.5

주 : 1) 2004년말 총자산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자료 : World Bank, 한국금융연구원

2.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경영성과)

- 2006년말 현재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 및 6.7%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영세

미국과 한국의 5대 증권사¹⁾ 규모 비교

(십억달러, %)

	총자산		자기자본	
	2005	2006	2005	2006
미국 (A)	596.7	730.8	24.1	28.3
한국 (B)	7.1	9.6	1.6	1.9
B/A	1.2	1.3	6.6	6.7

주 : 1) 미국 Goldman Sachs.Morgan Stanley.Merrill Lynch.Lehman Brothers.

Bear Sterns, 한국 우리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개사 평균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7.5)

-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면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국내 외국계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
- 국내 증권사는 ROA(2006년 3.4%)와 ROE(14.3%) 등 수익성 지표가 외국계(각각 7.4%, 28.8%)를 크게 하회
 - 한.미간 5대 증권사의 2006년중 평균 ROE를 비교하더라도 한국(12%)이 미국(24%)의 절반 수준
 - 2006년말 현재 국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순유동자산비율도 각각 538%, 12%로 외국계(687%, 27%)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추이

(%)

		수익성		건전성	
		ROA	ROE	영업용순자본비율 ¹⁾	순유동자산비율 ²⁾
국 내 사	2001	-2.02	-	132.4	-1.86
	2003	-0.10	-0.50	159.1	1.32
	2006	3.35	14.28	537.8	12.02
외 국 계	2006	7.37	28.83	686.5	27.05

주 : 1)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2) (유동자산 - 유동부채)/총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더욱이 증권사간 경쟁심화로 위탁매매, 유가증권 인수·주선 등과 관련한 수수료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수지를 압박

국내 증권사의 주요 수수료율 추이

(%)

	FY2003	FY2004	FY2005	FY2006
위탁매매수수료율	0.17	0.16	0.16	0.15
인수·주선수수료율	0.15	0.11	0.12	0.10
신종증권판매수수료율	-	1.12	1.27	0.30

자료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수익구조 추이

(십억원, %)

		FY2004	FY2005	FY2006
국내사	영업수익 (운용보수) (수수료수익)	313.7 (219.7) (53.4)	437.8 (322.8) (74.0)	639.4 (508.8) (78.9)
	영업이익	89.9	167.0	294.8
	총자산	1,257.8	1,305.5	1,592.8
	ROA (%)	7.3	13.5	17.8
외국계 ¹⁾	영업수익 (운용보수) (수수료수익)	117.1 (65.7) (41.4)	264.7 (211.7) (44.4)	239.6 (168.9) (57.1)
	영업이익	25.0	147.8	69.7
	총자산	371.4	494.4	484.8
	ROA (%)	△1.2	30.2	15.2

주 : 1)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자료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협회

- 한편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영업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6년중 ROA가 17.8%를 기록
 - 외국계는 2006년중 운용보수가 급감함에 따라 영업수익이 줄어들어 ROA가 국내사보다 낮은 15.2% 수준

(핵심기능 수행정도)

- 국내 증권사는 유가증권 인수·매출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공급이라는 직접금융 본연의 기능 수행이 미흡한 상태
 - 국내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우리나라 기업의 국외채권 발행 추이 (백만달러)

	1998	2000	2002	2004	2005
순발행액 (기간중)	-3,122	-1,615	4,200	7,096	8,647
발행잔액 (기 말)	16,043	18,706	26,432	28,023	30,147 ¹⁾

주 : 1) 2006.3월말 현재

자료 : 국제국

최근의 국내채권 발행잔액 추이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채권	444.2	523.6	588.5	646.4	718.8
(회사채)	180.0 (40.5)	187.4 (35.8)	153.3 (26.0)	142.6 (22.0)	134.4 (18.7)

주 : () 내는 비중

자료 : 조사통계월보

-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이며, 주식과 회사채를 합한 직접금융 조달규모 역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추이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식	14.3	12.2	9.9	11.2	8.4	6.7	6.4
기업공개	4.0	5.8	3.2	2.9	2.8	1.3	1.7
유상증자	10.4	6.4	6.7	8.3	5.6	5.4	4.7
회사채	58.7	87.2	77.5	61.8	50.4	48.1	41.0
합계	73.0	99.4	87.4	72.9	58.7	54.9	47.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한편 자산운용사의 펀드 설정잔액은 최근의 간접투자 확대 추세에 따라 2004년 이후 빠르게 증가

- 펀드 설정잔액은 2001년말 147조원 → 2006년말 236조원으로 1.6배 증가(예금은행 원화예금 대비 32.2% → 39.0%로 확대)
 - 특히 증시 활황을 반영하여 주식형펀드의 비중(2004년 4.5% → 2006년 19.8%)은 현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채권형펀드의 비중(40.1% → 21.2%)은 대폭 하락

자산운용사의 펀드종류별 설정잔액 비중

	(% , 조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식형	4.5	5.7	6.2	4.5	12.9	19.8
혼합형	28.2	27.6	23.8	17.6	20.7	20.1
채권형	43.4	36.6	39.0	40.1	25.4	21.2
M M F	23.9	30.1	31.1	32.2	31.5	24.2
기타	-	-	-	5.6	9.6	14.7
합계	100.0 (147.3)	100.0 (163.7)	100.0 (134.9)	100.0 (189.0)	100.0 (202.8)	100.0 (235.6)

주 : () 내는 금액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자생능력)

- 국내 증권사의 영업범위, 전문인력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의 자생능력을 보면 주요국 투자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열위인 것으로 평가

- **영업범위**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는 리스크 인수능력 취약으로 수익구성중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
- 국내 증권사의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로서, 특히 대형사의 위탁매매 의존도가 중소형사보다 오히려 높은 실정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의존도¹⁾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국내사 평균	57.7	66.8	57.5
(대형 6사 ²⁾)	60.3	68.4	61.3
(기타 중.소형사)	55.5	64.7	53.8
(온라인 4사)	64.4	74.6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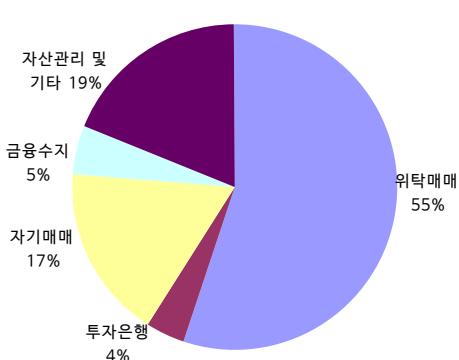
주 : 1) 주식위탁매매수수료/수수료 합계 2) 2006년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자료 : 금융감독원

- 반면 주요국 투자은행들은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리스크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자기매매와 투자은행 분야의 수익기여도가 매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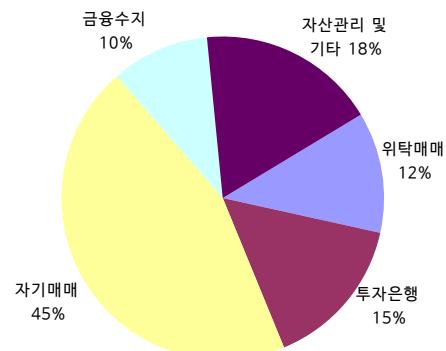
* 미국 투자은행의 경우 위탁매매 외에 유가증권 인수·M&A·경영컨설팅 등 투자은행 업무, 자산관리, 자기매매 등에서 전체 수익의 70~80%를 확보

증권사 영업부문별 수익비중 비교

(한국)



(미국)



주 : 2006년, 5대 증권사 기준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7.5)

- 자산운용사의 경우 상품개발능력 미비에 따른 상품모방 등으로 펀드규모가 작아 장기안정적 운용 곤란
 - 펀드별 평균 수탁금액은 2007.1월말 현재 295억원(8,239개)으로 미국의 2.5% 수준*
- * 수탁금액이 100억원 및 1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도 2007.1월말 현재 전체 펀드의 56% 및 18%에 이르는 수준

주요국의 자산운용사 펀드¹⁾ 규모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수탁금액 (조원)	243	9,341	506	674
펀드 수 (개)	8,239	8,056	2,699	1,899
평균 수탁금액 (억원)	295	11,596	1,876	3,547
평균 수탁금액 비교 (배)	1.0(2.5)	39.3	6.4	12.0

주 : 1) 외국은 2006.6월말 공모펀드 기준, () 내는 미국대비 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 전문인력 측면에서 선진국 투자은행들은 우수인력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신상품개발·판매, 투자은행업무 등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
- 또한 국내 증권사는 해외영업 비중이 극히 낮은 데 비해 선진국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판매, 리스크관리의 우위를 점유

<참고 2>

증권업의 시장집중도

- 2006년말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는 각각 54개 및 49개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증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수 추이

(개)

	1995	2000	2003	2006	1998~2005		
					퇴출	합병	신설
증 권 사	47(14)	63(20)	60(15)	54(14)	8	7	19
자 산 운 용 사 ¹⁾	31	27	32	49(14)	6	5	26

주 : 1) 2003년 이전은 투자신탁운용사 기준

2) () 내는 외국계

자료 : 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국내 3대 증권사의 시장집중도는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는 군소회사의 난립으로 CR₃가 2001년 36.0% → 2006년 24.6%로 오히려 하락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시장집중도(CR₃) 변화¹⁾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 권 사	23.4	22.3	25.1	25.6	30.5	25.4
자 산 운 용 사	36.0	36.7	37.0	34.1	29.6	24.6

주 : 1) 증권사는 총자산 기준,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설정액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CR₃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보다는 낮고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

주요국 자산운용사의 시장집중도 비교

(2007.3월말 현재)

(%)

	일본	미국	한국	영국
CR ₃	47.5	32.1	24.6	17.3

주 : 수탁고 기준

자료 : 자산운용협회

3. 보험사

(경영성과)

- 상위 3개 생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미국과 일본 상위 3사의 10~20% 수준

주요국 생보사 자산규모¹⁾ 비교
(2005회계연도말 기준)

(십억달러)

	한국		미국		일본	
	전체	상위 3사	상위 10사	상위 3사	전체	상위 3사
총 자 산	11.2	61.3	228.2	359.6	47.0	298.9
자기자본	0.8	4.4	-	41.3	3.8	25.3

주 : 1) 한국은 삼성.교보.대한생명, 미국은 AIG.Met Life.프로덴셜,
일본은 日本.第一.住友生命 평균

자료 : 생명보험협회, 미국 생보협회, 일본 생보협회

- 부문별로 보면 생보사 총자산은 2006년말 현재 298조원으로 손보사 총자산 47조원의 6.4배
 - * 2006년말 현재 손보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보험시장의 13.5% 수준
- 수입보험료 규모는 세계 7위로 경제규모 순위를 능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명목GDP 대비 비중도 10.5%로서 보험시장 규모가 미(9.2%), 일(10.5%) 등에 비해 작지는 않은 상태
- 그러나 가계의 생명보험 계약 자산의 명목GDP 대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아직도 발달 미흡
 - 2004년말 현재 동 비율이 28%에 그쳐 미국(96%), 일본(77%) 등을 훨씬 하회하고 있으며, 이탈리아(38%), 독일(31%) 등과 함께 주요국중 최하위 수준

국가별 보험산업 규모¹⁾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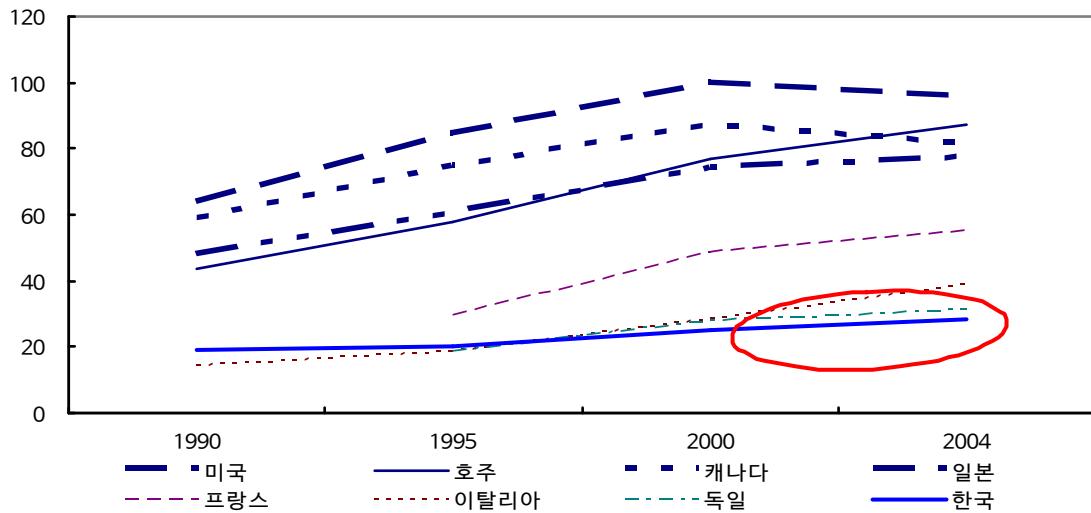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수입보험료	세계시장 점유율	수입보험료/명목GDP
1	미국	1,142.9	33.4	9.2
2	일본	476.5	13.9	10.5
3	영국	300.2	8.8	13.5
4	프랑스	222.2	6.5	10.4
5	독일	197.3	5.8	7.1
6	이탈리아	139.2	4.1	7.9
7	한국	82.9	2.4	10.5

주 : 1) 2005년 기준, 생보와 손보 합계

자료 : Swiss Re.「Sigma」No.5/2006, "World Insurance in 2005"

주요국 가계의 생명보험관련 금융자산 비중 추이

(명목GDP 대비 비율, %)



자료 : BIS

- 한편 국내 보험사의 수익성은 투자수익률이 낮은 채권보유 비중 과다 등으로 미흡하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
- 생보사의 2006년중 총자산수익률(5.49%)은 하락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운용자산수익률(5.75%)도 최근 들어 저조
 - 손보사도 운용자산수익률이 4%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 (2003년 4.96% → 2006년 4.85%)

- 특히 경제성장을 저하 등의 영향으로 신계약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2000년 이후의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향후의 수익 전망도 불투명
 - 생보사의 경우 시장금리가 보험계약시 기준이율을 하회하는 利差 逆마진* 상황에 이미 수년간 노출되고, 국내사의 보험금지급률(2006년 62%)이 외국계(33%)보다 2배 정도 높아 수지를 압박
 - * 2005년중 $\triangle 0.76\%p$ 를 기록하였으며, 보험개발원은 동 이차역마진이 2007년 $\triangle 0.66\%p$, 2008년 $\triangle 0.45\%p$ 로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
 - 손보사의 경우 경과손해율(2006년 79%)이 교통사고 과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 증가 등으로 외국계(39%)보다 2배 이상 높아 수지부담요인으로 작용
- 다만 건전성은 생보사(2006년말, 지급여력비율 237%, 유동성비율 197%), 손보사(지급여력비율 300%, 유동성비율 181%) 모두 양호*
 -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제

생보사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

		국내사			외국계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수익성	ROA	4.03	6.21	5.49	4.74	4.79	4.64
	운용자산수익률	4.21	6.44	5.75	5.05	5.09	4.88
경영효율성	보험금지급률 ¹⁾	82.73	66.44	62.14	72.67	41.14	33.25
	신계약률	38.27	16.76	16.84	42.1	28.03	21.64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²⁾	67.7	228.1	237.4 ³⁾	72.4	190.5	193.6 ³⁾
	유동성비율	-	140.64	196.60	-	112.56	173.72

주 : 1) 보험금지급건수/보유보험건수

2) 대형 3사(삼성·교보·대한생명) 익년 3월말 기준 3) 2006.3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손보사 주요 경영지표 비교

(%)

		국내사			외국계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수익성	ROA 운용자산수익률	2.06 2.62	4.11 4.96	4.31 4.85	6.48 9.87	3.62 4.74	2.96 4.27
	경영효율성	경과손해율 ¹⁾	81.47	75.55	79.10	48.87	61.76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²⁾ 유동성비율	- -	316.1 146.18	300.2 ³⁾ 180.52	- -	163.8 281.80	216.2 ³⁾ 455.42

주 : 1)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2) 대형사(삼성·현대·LIG·동부) 익년 3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핵심기능 수행정도)

- 국내 보험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추세가 완만한 데다 운용자산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어 핵심기능 수행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생보사의 경우 외국계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수입보험료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2002.3월말 7% → 2006.3월말 21%)

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10억원, %)

		2002.3	2003.3	2004.3	2005.3	2006.3
생명보험	국내사	42,390	42,727	42,117	43,360	50,854
	외국계	3,117 <7.4>	3,996 <9.4>	4,903 <11.6>	8,372 <19.3>	10,606 <20.9>
손해보험 ¹⁾	국내사	18,316	20,029	20,696	22,398	24,630
	외국계	104 <0.6>	152 <0.8>	191 <0.9>	263 <1.2>	328 <1.3>

주 : 1) 손보는 원수보험료 기준, < > 내는 외국계 보험회사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보험사의 자산운용구조를 보면 국내 생보 및 손보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가증권 비중을 확대
- 생보(1999년말 39%→2006년말 51%), 손보(47%→53%) 모두 유가증권 비중이 상승한 반면, 대출은 각각 1999년말 34%→2006년말 21% 및 13%→17%로 엇갈리는 모습
 - 한편 외국계는 유가증권 비중을 60% 내외로 유지하면서 대출채권 비중(18%→7%)을 축소

보험사 자산운용구조 추이

(%, 십억원)

			1999	2001	2003	2005	2006
생보사	국내사	총 자 산	(99,242)	(126,748)	(164,131)	(208,742)	(231,693)
		유가증권	38.5	41.4	48.3	51.2	50.5
	외국계	대출채권	34.3	30.0	25.9	21.6	20.7
		총 자 산	(5,010)	(7,072)	(11,691)	(26,024)	(34,088)
손보사	국내사	유가증권	53.8	58.8	62.3	60.6	56.7
		대출채권	17.5	9.9	9.6	7.5	7.1
	외국계	총 자 산	(26,581)	(33,115)	(37,520)	(48,342)	(55,034)
		유가증권	47.1	47.5	52.6	54.1	53.0
		대출채권	13.3	13.1	16.9	17.1	17.4
		총 자 산	(73)	(141)	(414)	(677)	(764)
		유가증권	43.3	27.6	30.1	24.0	27.4
		대출채권	5.8	2.8	0.5	2.9	1.5

주 : () 내는 금액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국내 생보사의 보유 유가증권중 주식 비중은 2005년중 6% 수준으로 주요국 생보사에 비해 자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

주요국 생보사의 자산구성

(%)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		예금·대출		기타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한 국	14	47	14	6	3	6	61	24	9	18
미 국	62	56	16	24	1	2	14	12	7	6
영 국	30	41	53	33	8	10	8	11	2	6
일 본	32	52	21	24	1	2	40	20	7	3
독 일	15	10	14	20	11	18	54	46	6	6

자료 : BIS

(자생능력)

- 보험사의 영업범위, 전문인력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의 자생능력을 보면 국내 보험사는 주요국 보험사보다 미흡
-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국내 보험사는 리스크 인수능력이 취약하여 대형 보험사고 등 각종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헤지*라는 고유기능 수행 불충분
 - * 손보사의 위험 자체보유능력 취약으로 재보험 출재수지차의 적자가 계속 확대 (FY01)△6,284억원 → (FY05)△8,741 → (FY06.3/4)△8,232
 - 또한 선진국 보험사는 80% 이상이 정교한 ALM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도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이 낙후
 - * 가용자본(자기자본 등 기본자본과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의 합)을 요구자본(금리·운영리스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채택으로 종합적·사전적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
- **해외네트워크**의 경우도 2006.9월말 현재 국내 보험사는 55개(현지법인 15개, 지점 7개, 사무소 33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
 - 반면 주요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지점·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신흥 성장시장을 개척하여 체계화된 해외인프라를 구축
- **전문인력의 경우** 보험사의 핵심인력으로 간주되는 보험계리사의 수가 342명(2006.9월말, 전체 직원의 0.5%)에 불과하여 미국의 22,362명(2005.10월말, 전체 직원의 3.5%)에 비해 크게 부족

<참고 3>

보험업의 시장집중도

-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 수는 감소(2006년 22개)하였으나 손보사 수는 크게 증가(29개)

보험사 수¹⁾ 추이

(개)

	1995	2000	2003	2006	1998~2005		
					퇴출	합병	신설
생보사	33	23	23	22 (8)	9	5	4
손보사	17	17	26	29(13)	2	1	4

주 : 1) () 내는 외국계, 손해보험은 재보험·보증보험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 시장집중도는 생보사가 2006년말 현재 CR_3 가 72.9%에 이르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준인 75%에 근접하고 있으며, 손보사도 CR_3 가 2000년말 46.8% → 2006년말 57.0%로 지속적으로 상승

국내 보험사 시장집중도 추이¹⁾ (총자산 기준)

(%)

	1999	2000	2002	2004	2005	2006
생보사	CR_3	77.9	80.6	80.5	78.0	75.5
	외국계	4.7	4.7	5.7	9.4	11.1
손보사	CR_3	47.3	46.8	53.9	57.4	57.0
	외국계	0.3	0.3	0.9	1.2	1.4

주 : 1) 총자산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별도 금융기관으로 간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특히 외국계 생보사의 총자산 기준 시장점유율은 1999년말 4.7% → 2006년말 12.8%로 지속적으로 상승
-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00년말 7.4%→2006년말 22.9%로 총자산 기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

4. 종합 판단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국내은행은 대형화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ROA.자기자본비율 등 수익성과 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과점체제에 의한 시장점유율 경쟁 등으로 향후의 성장 전망은 불투명
 - 자생능력에서는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국내시장에 집중된 영업망, 리스크관리능력 및 전문인력* 등에서 주요 선진국 은행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
-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금융전문가 숙련도(finance skills)는 61위(2006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 최근의 수익성 정체 기미, 경쟁격화에 따른 대형은행의 薄利多賣 추구 및 쏠림현상(herd behaviour)*의 반복.일반화 등에 비추어 은행권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
- * 외환위기시 대출기피,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확대경쟁 등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은행과의 경쟁력 격차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면서 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위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 증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과 건전성도 낮은 데다 핵심 기능인 유가증권 인수.매출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공급이라는 고유기능 수행도 미흡

- 비재무적 자생능력에서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구조, 상품개발 및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해외 영업망 미비 등으로 주요국 투자은행에 비해 매우 취약
-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자의 수익극대화를 지원하는 핵심기능을 단기간에 구축해 가고 있으나 펀드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시장상황에 따라 환매도 잦아 장기 안정적 펀드운용 곤란

(보험사)

- 보험사는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보험시장의 성장정체*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수익성은 저조
 - * 생보사의 연평균 계약금액 및 계약건수 증가율 :
1999~2002년 16.4%, 14.2% → 2003~2005년 8.3%, 2.4%
- 특히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금리가 예정이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심화될 경우 건전성도 악화될 소지
- 비재무적 자생능력 측면에서도 리스크관리시스템, 해외네트워크, 전문인력 등에서 선진국 보험사에 비해 크게 취약
- 한편 증권사의 장기금융자산 공급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생보사, 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등 특정 금융권의 역할 미흡이 여타 금융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실정

III. 경쟁력 강화 방안

1. 우리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음

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도약

-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
- 이를 위해 해외진출 확대, 대형화를 통한 규모경제 추구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을 배가

② 직·간접금융의 균형적 발전 도모

- 신규 진입과 부실기관 퇴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별 금융권 내부 및 금융업권간 공정경쟁기반을 구축
- 금융혁신 추세에 대응하여 증권·자산운용사의 핵심기능 강화로 은행중심 → 은행과 직·간접금융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③ 각 경제주체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경업화에 의한 시너지효과 발현, one-stop service 확대 등으로 다양한 금융수단 선택이 가능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최소화를 도모

- 서민금융 공급기능의 회복으로 금융소외계층에도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④ 노인·은퇴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

- 주식·채권 등이 활발하게 공급되는 가운데 생보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 이들의 자산운용기능 충실화로 노인·은퇴계층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⑤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 금융혁신 속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제 정착을 통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감독과 규제의 효율화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

⇒ 이러한 미래상에 비추어 각 금융권이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산업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더하여 금융산업의 틀 개선과 관련하여 추가로 법제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 *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리스크관리능력 배양방안 등은 제외
- 아울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하부구조 개선방안을 제시

2. 금융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가.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① 은행권의 경쟁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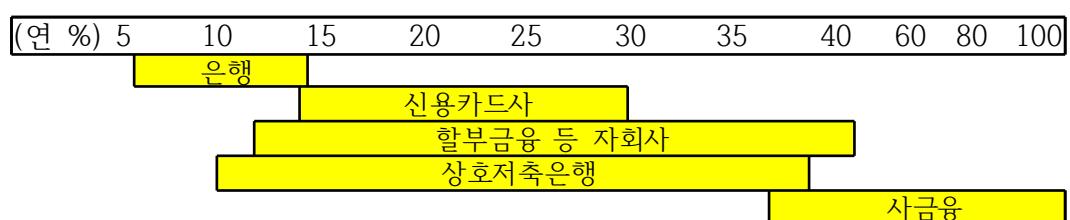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우량 대형은행이 출현하는 등 은행권이 한 단계 도약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과점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재적인 역동성이 부족한 상태
 - 대형은행들은 신규 진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누리면서 시장점유율 경쟁에 몰두하는 地代追求(rent-seeking) 행태를 당연시
 - 薄利多賣 형태의 영업만으로도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리스크가 큰 업무를 혁신적으로 도입할 유인 부족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예대업무 등 은행 유사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차별이 제도화됨으로써 은행과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발맞추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금융자본의 은행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의 역동성을 회복
 - ① 예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단일법으로 규율하되 은행.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업종별 금지업무를 규정

- ②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과 연계하여 소유·지배구조,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③ 현행 은행 설립자본금(市銀 1,000억원, 地銀 250억원)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제거
- * 過剩進入(over-banking)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동일업무를 취급하는 비은행의 은행전환 통로를 마련한 데 불과. 다만 현행 은행 소유규제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소유한 비은행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통로는 봉쇄
- ④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과 유사한 주택금융전문기관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 ⑤ 서민금융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소액신용대출 등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무 취급 요구를 수용

* 新韓 및 하나金融持株의 경우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나 경영건전성 저하,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잠식에 따른 비난 등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를 의식하여 현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배제

- 은행의 대출기각고객(7~9 신용등급으로 대출신청자의 약 60%로 추산)을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의 자회사가 흡수하는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해 연 20~40% 금리 수준의 서민금융을 확대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수준



- 이러한 제도개편이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금융권간 제도적 불평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
 -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취급 허용으로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쟁력 유지 가능
 - 소형은행이 저위험·저수익 업무를 강화할 경우 대형은행들은 수익 다각화 및 자발적인 해외진출 확대 추구 불가피
 - 대형은행으로 하여금 금융혁신 선도 등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가능
 -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대형화 필요성으로 M&A나 부실기관 퇴출이 활발해지는 등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되고 이들의 경쟁력 향상도 가능
 - 소형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민 밀착형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서민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 예상
 - 또한 서민금융시장의 경쟁촉진에 의한 금리인하 압력으로 고금리를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계 고리 대부업과 사채시장 팽창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

②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정부방침*을 참고하되 우리 금융기관의 기초 경쟁력을 반영하여

은행.증권.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전방위로 추진하기보다는 은행의 해외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정부는 2007.4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기관의 해외진출은 수익성,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판단하되 정부는 규제개혁과 리스크관리 강화, 해외진출 지원·협력체제 구축 및 금융외교 확대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할 방침

- 증권사는 규모가 작고 국내 직접금융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먼저 국내에서 투자은행 업무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
- 보험사도 자생능력이 취약한 만큼 해외진출을 서두를 필요성이 약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면 현지화 전략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향후 증권, 보험 등의 해외진출도 보다 용이하게 추진 가능

□ 구체적인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 진출지역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금융수요가 큰 아시아 신흥 시장을 최우선시
- 주력업무는 모기지론, 모바일뱅킹 등 소매금융을 우선으로 하되 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글로벌 사모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포함
- 시장침투 전략으로는 소액무담보금융(micro credit) 등을 통해 평판효과를 높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강구

③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

*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상호금융.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 이는 비은행권의 주된 역할이 금융편의 제고에 있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신용카드 사태(2002~03)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비은행금융기관 관련 정책을 추진
 - ① 채권자권리 보호, 계약이행, 회계.공시제도, 채권추심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미비점의 점검과 개선
 - ② 부실기관의 신속한 퇴출, 모니터링 강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정책 운용
 - ③ 우체국 예금.보험 등에 대해서는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증권사

① 증권업의 구조재편

- 국내 증권사의 장기금융자산 공급기능이 취약한 것은 주식·채권 총액인수 등을 기피하고 리스크가 없는 주식 위탁매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서 비롯
 - 국채전문딜러의 지표채권 장내거래가 의무화(2002.10)된 이후에도 국채전문유통시장을 이용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이른바 복제거래가 성행할 뿐 실질적인 시장조성* 실적은 미미
 - * 특정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매도가격을 상시 제시하여 일반투자자의 거래를 촉진하며, 시장조성자는 특정 유가증권의 보유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매입·매도가격간 스프레드로 수익원을 확보
- 채권유통에 있어서도 증권사에 의한 시장조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통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도 부족
- 증권사에 의한 유가증권 총액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장기금융자산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기대하기 곤란
-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더하여 시장조성 의무를 감당 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
-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매매·중개·자산운용 겸영 등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자급결제업무 취급 등으로 대형 투자은행 출현이 기대

-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대형사들도 위탁매매 수수료에 계속 의존하는 현재의 시장구조가 유지되는 한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큰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하는 데는 한계**

* 현재는 종합증권업 500억원, 유가증권매매업 200억원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리스크가 없는 위탁매매 취급도 최소 3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미국은 위탁매매업 5천달러, 종합증권업 25만달러로 대폭 차등화하여 대형 투자은행의 시장조성업무 취급을 유도)

**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매매업·투자증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등 각 인가업무단위별 최저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본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주식 위탁매매 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의 broker들이 출현하도록 유도

□ 대형 투자은행과 다수의 broker가 병존하는 형태로 시장구조가 재편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 기대

- 소형 증권사에 의해 기존 수익기반이 잠식되는 대형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M&A, 모험자본 투자 등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할 유인 발생
- 유가증권 인수·매출을 중심으로 대형사의 시장조성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주가·금리 등 가격변수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그 변동성도 축소 예상
- 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민 채권거래 유인이 발생하는 만큼 개인의 채권투자 촉진으로 국채·회사채 등 장기채 유통시장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

② 채권 지급보증제도 보완

- 채권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재편된 이후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위축
 -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는 회사채(3년물 AA-) 유통수익률 보다 높고(2007.3월 평균 0.64%p),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회사채 (BBB-)보다 낮아(1.46%p) 대기업은 직접금융, 중소기업은 간접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어 회사채 발행 건수가 2003년 이후 연 20건 내외에 불과하고 발행액도 급감*
- * 1996년말 3조 3,800억원 → 2002년말 2조 1,200억원 → 2006년말 4,200억원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해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보강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
 -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재개하는 방안*, 채권보증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모색
 - * 증권사는 외환위기 이전 자기자본의 100% 범위 이내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을 취급했으나 무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증권사의 건전성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전면 금지
 - 증권사의 지급보증업무 취급을 재개할 경우 지급보증 실적을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연계하는 등 지급보증 관련 리스크가 증권사의 건전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덕해이를 방지

- 채권보증전문기관 설립시 기존 보증보험사의 기능 강화, 증권사·은행 등의 출자에 의한 민간 보증기구 설립 등의 타당성을 검토
- 다만 어떤 경우든 채권보증업무가 이윤동기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③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완화

- 자산운용시장에서 대형 외국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
-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규제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
 - ①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전용 자산운용사 등의 설립을 허용
 - ②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 공공금융기관의 PEF 출자제한 완화, 연기금 등에 대한 재간접투자 허용 등으로 기관투자가의 PEF 투자를 활성화
 - 또한 투자대상·출자지분·지분 보유기간 규제가 투자대상 기업의 발굴을 저해하고 기대투자수익률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자산운용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
 - ③ 헤지펀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건전한 투자자금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의 규제수준을 상시 점검하여 헤지펀드의 생태여건을 개선

다. 보험사

① 보험사 자산운용기능 확충

- 보험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기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주식운용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 보험사는 사망, 질병 등의 확률분포에 좌우되는 현금흐름의 특성상 자산을 주로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사의 자산운용 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채권과 대출에 편중
- ①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로 개편*하여 **자산운용범위를 주식 등으로 다변화**
 -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 자기자본규제를 자기자본·배당준비금 등 지급여력을 책임준비금·위험보험금 등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 →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Based Capital)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
 - RBC제도는 시장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감안하고 있는 만큼 시장리스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식운용 확대에 의한 수익성 제고 가능
 - 법제화를 통해 RBC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 건전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주요국보다 주식운용의 위험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

② 이와 함께 최근 그 방향이 확정된 생보사 상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자본 충실화를 도모함으로써 RBC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

②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수요기반 확충

- 연금시장은 노인·은퇴계층에 대해 소득확보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보험사의 주식 운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데다 안정성이 중시되어 국민연금(2006년말 현재 총자산 189조원)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총자산 30조원) 등 직역연금은 각각 자산의 87% 및 48%를 채권으로 운용
 - 이는 자산을 주로 주식으로 운용*하는 주요국 퇴직연금의 경우와 크게 대비
- * 미국(2005년말 47%), 영국(42%), 일본(59%)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주로 주식으로 자산을 운용
- 또한 퇴직연금제도도 시행(2005.12) 이후 1년 이상 경과했으나 2006년말 현재 적립금 규모가 1조원에도 미달하여 미국(명목 GDP의 110%) 등에 비해 퇴직연금의 규모가 극히 미미(한국 0.09%)

주요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명목GDP 대비 비중

(십억달러, %)

미국	영국	호주	홍콩	한국
12,902 (110.0)	1,279 (65.1)	580 (77.9)	20 (11.0)	0.8 (0.09)

주 : 한국은 2006년말, 여타국은 2004년말 기준

자료 : BIS

- 보험사와 함께 국민연금 등이 채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장기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우려
 -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 300조원에 이를 전망임에 비추어 장기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도 충실해지지 못할 가능성
 - 따라서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구조 개편,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연금이 주식을 대상으로 자산을 적극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 ① 단기적으로는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다양성을 확보
 - ② 퇴직연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사내 퇴직적립금의 손비인정 폐지, 퇴직적립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의무화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모색
 - 아울러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완화
- *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은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주식연계채권,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 등으로 운용 불가능
확정급여형은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고위험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40%로 제한

3. 금융하부구조의 개선

- 금융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하부구조를 정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 추진될 필요

가. 신용평가제도 개선

- 증권사가 채권 등 장기금융자산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제도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매출액 기준 1997년 100억원 → 2006년 575억원 규모로 급성장

* 무보증 회사채 발행비중 : 1997년 24.7% → 2006년 99.4%

신용평가시장 규모 추이

	1997	2003	2004	2005	2006	(억원)
매출액	100	428	440	554	575	

- 그러나 이러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 부족으로 신용평가제도가 채권시장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의 설문조사(이데일리, 2007.4)에서도 회사채 신용등급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이 4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

- 이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사를 통해 회사채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기업은 350개 내외로 증시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기업의 20% 수준(2006.6)에 머물 정도로 신용평가를 통한 채권 발행이 제한
 - 이는 또한 국내 신용평가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 대상 기업의 신용정보 풀을 제약하여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다시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평가 제도의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
 - ① 신용평가사의 업무성과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피평가기업과의 유착에 의한 신용등급 왜곡 등에 대한 처벌장치 강화
 - 현재 신용평가시장은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평가 대상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으로 이해상충 문제 상존
 -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 3대 신용평가사가 전체 시장의 약 98%(2006년 기준)를 점유
 - ②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복수평가제도*가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로 인해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 효용성을 재검토
 - * 현재 기업이 회사채 또는 CP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2개 이상 신용 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③ 한·미FTA* 타결 등을 계기로 신용평가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
 - * 신용평가업 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공인회계사, 유가증권 분석·평가 경력자) 요건을 완화(20인→10인)하기로 합의

나. MBS 관련 제도 개선

- 주택대출채권담보부증권(MBS) 등 유동화증권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확보수단이 되는 동시에 보험사, 연금 등의 자산운용 대상으로서 채권시장의 深度를 제고*

* 미국의 경우 2006.3월말 현재 ABS(2.0조달러), MBS(6.1조달러) 등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8조달러를 상회하여 전체 채권시장(26조달러)의 31%를 기록

-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택금융공사가 전담 발행하는 MBS 발행잔액이 2006년말 현재 8.9조원에 불과(전체 채권잔액 146조원의 6%)할 정도로 왜소

* 학자금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합칠 경우 11.1조원

MBS 발행 추이

(억원)

	2004		2005		2006	
	발행	잔액	발행	잔액	발행	잔액
MBS	30,160	35,094	38,160	71,735	17,524	89,266
SLBS	-	-	5,170	5,170	16,429	21,312
합 계	30,160	35,094	43,330	76,905	33,953	110,578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온 ABS 시장도 2000년 이후 크게 위축(2003년 39.8조원 → 2006년 23.2조원)
- 유동화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ABS보다 가계의 주택구입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효과를 수반하는 MBS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ABS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발행 수요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

* 전체 채권 발행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충분히 높은 수준(2001년 45.4% → 2006년 33.4%)

- 따라서 MBS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현재에는 주택대출채권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은행이 주택금융시장을 거의 독점(2006년말 현재 전체 주택금융의 73%를 공급)하고 있어 MBS시장 형성 곤란

다. 벤처캐피털시장 활성화

- 벤처캐피털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신생기업의 출현·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하여 주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중요기능을 담당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시장은 명목GDP 대비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
- 그러나 이는 창업투자조합의 정부출자 비중이 1997년말 5.7% → 2003~06년중 30%로 높아지는 등 정부지원에 주로 기인

창업투자조합 출자자 구성

(억원, %)

	1997	2003	2004	2005	2006
창업투자사	1,152(11.9)	711(15.6)	762(14.4)	636(11.1)	999(12.8)
정 부	557(5.7)	1,379(30.2)	1,641(31.1)	1,958(34.1)	2,373(30.4)
금융기관·개인 등	8,009(82.4)	2,460(54.2)	2,871(54.5)	3,146(54.8)	4,434(56.8)
합 계	9,718(100.0)	4,550(100.0)	5,274(100.0)	5,740(100.0)	7,806(100.0)

주 : 1997년 출자자 구성은 누계 기준, 2003~06년중은 당해연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정보센터

- 또한 정부가 벤처캐피털산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자금이 과잉 공급되면서 모험자본 투자단계별로 도덕해이가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 더욱이 2001년 이후 신규투자가 정체되고 잔액이 감소하는 등 벤처캐피털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 업력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2001년 47.1% → 2005년 9.4%로 하락하고 창업투자사의 ROE가 2001년 이후 1.0%에도 미치지 못해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난

최근의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

(개,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규지원	금액 기업 수	20,075 1,901	8,893 1,117	6,167 767	6,118 615	5,639 510	6,651 524	6,274 574
잔액	금액 기업 수	28,691 1,973	30,358 3,076	30,322 3,082	27,371 2,861	25,631 2,618	21,412 2,272	20,057 2,030

주 : 창업투자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실적 합계 자료 : 벤처투자정보센터

창업투자사 및 은행 자본이익률(ROE) 추이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창업투자사	당기순이익 ROE ¹⁾	3,496 13.7	117 0.5	156 0.6	-2,777 -10.9	- ²⁾ 0.0	200 0.8	230 0.9
국내은행	ROE	-11.0	12.8	10.9	3.4	15.2	18.4	14.6

주 : 1) 2002년 이후는 창업투자사의 자기자본 미추계로 2001년 기준으로 추산
 2) 당기순이익 미추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벤처투자정보센터

- 따라서 벤처캐피털에 대한 정부역할 축소, 벤처캐피털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방식 재조정, 창업투자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검토

- ①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출자를 점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대신 창업투자사가 공모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 검토

* 직접출자시 투자실패가 정부기금 손실로 직결되나 사채 지급보증의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우선청구권 부여 등으로 손실 최소화 가능

- 창업투자사 등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는 납입자본금의 2~3배 정도로 대폭 축소
-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관련한 재원은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보다 현재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직접출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능 재편을 통해 마련
 - *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② 창업투자사 등 벤처캐피털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적용

- 자격미달 창업투자사의 조기퇴출을 위해 창업투자사의 설립 요건을 현행 등록제 → 인가제로 전환
- 창업투자사 등의 투자대상기업 요건을 업력(사업개시 이후 7년 미만 중소기업 등) 기준 →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
- ③ 이밖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모험자본 투자대상기업 선별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법정 존속시한인 2007년말 이후 즉시 폐기

라. 금융전문인력 양성

- 자산운용, 파생상품거래, 리스크 평가·관리, 투자은행업무 등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은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

- 금융업 종사자(2005년말 58만명)중 전문인력 비중은 7%(미국은 20%), CFA.FRM 등 전문자격 소지비율은 1.2%에 불과하고 2015년에는 전문인력이 1만명 이상 부족 예상

-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

- 정부는 최근 발족한 金融專門大學院 및 金融人力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수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확충하는 데 주력

- 한·미FTA 체결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인력이 선진 금융시장에서 전문역량을 쌓을 기회도 확대

- 또한 금융기관 스스로도 비용 통제로 순이익을 늘리는 성장구조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인력투자를 과감하게 늘릴 필요
 - * 은행의 경우 1인당 자산이나 수익규모로 볼 때 고급인력 확보 여력이 충분하므로 취약부문의 전문인력 확대에 주력

주요국 4대 은행 1인당 자산 및 수익규모 비교

(백만달러)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1인당 자산	11.1	47.3	19.1	5.4	8.5
1인당 수익	0.146	0.362	0.091	0.095	0.084

주 : 1) 2005년말 기본자본 기준 상위 4대 은행
 자료 : The Banker(2006.7)